

세계 금융 리더들과 자산운용 전략 모색

국민연금공단, 9월 3일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9월 3일 전북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에서 세계 금융 리더들이 참가하는 ‘2026 전북국제 금융컨퍼런스(JIF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민연금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KB금융이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지니(GENIE)포럼의 핵심 세션이다.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운용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지니포럼은 ‘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의 약자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올해 행사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진행된다.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크리스 호그빈(Chris Hogbin) 라자드 자산운용 대표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카밀 블랙번(Camille Blackburn) 영국 금융감독청(FCA) 아태 총괄 국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

치센터장, 앤디 버든(Andy Budden) 캐피탈 그룹 아태 투자총괄, 앤드류 샤프-폴(Andrew Sharp-Paul) 웰링턴 매니지먼트 아태 솔루션 총괄, 김승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 부문 대표,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JIFC를 비롯한 제7회 지니포럼은 9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니포럼과 핀테크 스타트업 비즈 밋업 등 금융·경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공식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지니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을 직접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특히 올해 지니포럼과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처음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행사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전북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베스트행정사사무소와 ‘외국인 고객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고객 의료지원 협력

전북은행-계명대 대구동산병원-베스트행정사사무소,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베스트행정사사무소와 ‘외국인 고객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와 전문적인 행정·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까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산재 피해를 입은 외국인 거래 고객에게 대구동산병원과 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대구동산병원은 연계된 외국인 산재 환자에게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고, 산재 승인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 서류 발급에 협조한다.

베스트행정사사무소는 체류자격과 관련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해 산재 신

청, 장애급여 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 부행장, 김상현 대구동산병원장, 배은수 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산재 피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언어적 소통 지원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 부산외국인금융센터 대구외국인라운지는 올해 4월 문을 열고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9개국 외국인 직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금융환경 정착과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애로사항 청취

김종화 전북지방조달청장, 조달기업 리퓨터 제조현장 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종화)은 지난 25일 주식회사 리퓨터(대표 김명자)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판로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2년 설립된 리퓨터는 전주를 본사를 두고 익산에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노

트북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액정모니터 등을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이날 김종화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품 생산과정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조달제도 및 판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종화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지역 조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공공조달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



김종화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지난 25일 주식회사 리퓨터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현장 방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자체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전북경찰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전북지역 R&D 참여기업과 초격차 스타트업, 수출 유망기업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전북중기청은 전북테크노파크(TP)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졸업기업, 지역 이노비즈 인종기업을 비롯해 국정원과 경찰청이 추천한 산업보안 취약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해 방문 대상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합동 방문단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기술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중기청은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국정원은 기업의 방첩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 유출 징후를 진단한다.

전북경찰청은 기술탈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초동 수사 절차와 대응 가이드를 제공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는 현장에 동행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기술보호 기초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합동 방문단은 매일 3~4개 기업을 순회 방문하며 기술보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군산신영시장 찾아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 피해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군산신영시장을 찾아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상적인 폭우와 강풍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중기청은 이날 군산신영시장 내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강풍에 대비한 시설물 고정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전북중기청은 여름철 사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도내 전통시장 1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군산대아시장과 무주반딧불시장, 군산



신영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집중안전점검에 이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정부 차원의 밀착 지원을 통해 여름철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방은행 최초 비대면 보증대출

전북은행, ‘JB Easy-One 보증대출’ 상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6일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지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JB Easy-One 보증대출’을 지방은행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췄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상환 여력이 생긴 차주가 부담 없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신청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쓱뱅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 내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